

이 사람의 평전이 필요하다

최근 서점에는 서가 한 개 전체에 꽂아 놓을 정도로 전기, 자서전, 평전 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그 전에도 외국의 전기물이 번역되어 인기를 끌고 전집류도 번역되곤 했지만 이렇게 따로 분류되어 서점의 한 코너를 차지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 인물에 관한 전기물을 번역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인물에 대한 평전은 드물다. 성공한 인물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처세담일 뿐, 한 인물의 생애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평전은 아니었다. 한국의 인물에 대한 전기물로 대표적인 것이 아동용 위인전이다. 세계위인전집에 장식으로 몇 명 끼워 넣던 데서 나아가 같은 분량으로 한국위인전

집이 나오게 된 것만 해도 큰 진전이다. 인물의 일대기와 연보 그리고 관련화보가 실려 있어 기본적인 사실과 한 인물의 개략적인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지만 너무 상투적이고 교훈적이다.

평전이란 한 인간 전체에 대한 연구이며, 어떤 인물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거기에 대해 평전작가의 논평을 곁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전은 인문학의 정수이다. 인문학이란 결국 인간학이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남 말하기, 그것도 입을 모아 누군가를 험담하기라고 했던가. 문학, 특히 소설은 그런 남 말하기의 대표적 장르이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

이상경_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새로운 여성상을 밝힌

들 속에서 나 자신을, 또는 내가 아는 다른 어떤 인물이 사는 모습을 엿보는 것이 소설을 읽는 최고의 재미 아니겠는가. 그런데 소설은 어쨌든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남 말하는 재미의 직접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평전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떤 인물에 대한 사실과 일화를 충분히 밝힌 다음, 그것들을 그가 살았던 사회적 문맥의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면서 의미를 비평적으로 재구성하고 한 개인이 처하게 된 위기와 결단의 순간들을 부각시킬 때, '위인전'이 아닌 '평전'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확한 연보작성, 일차 자료의 확보, 비판과 분석, 적절한 구성 등이 인물연구에 필요한 작업이며 이런 작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평전작업은 쉽지 않다.

한국의 인물 중에서는 문학예술 분야, 특히 시인과 작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물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문인들은 작품 이외에도 그들에 대한 주변기록 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덕분이겠지만 일차 자료와 이차 자료를 많이 남기고 있는 문학인들조차도 비어 있는 부분이 많고 제대로 된

평전을 기다린다

신뢰할 만한 연보조차 그리 많지 않은 것이 국문학계의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평전을 쓰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품을 파는 작업이다. 기록의 편린들을 긁어모으고 기억을 되살려내고 앞뒤 조각을 하나씩 맞춰 한 인간의 생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라니. 이것은 우리 역사의 굴곡과도 관련이 있다. 기록을 남기기 어려웠던 억압의 세월, 기록보다도 종이도 중요했던 궁핍, 전쟁과 이산의 과정에서 산일될 수밖에 없었던 원고 뭉치들.

이런 상태에서 '전기 소설'이라는 묘한 명칭을 단 소설들이 나오기도 한다. 실존 인물의 삶을 소설형식으로 썼다는 이런 것을 읽어보면, 각종 일차 자료를 찾고 확인하여 재구성해야 하는 전기를 쓰기에는 게으르고,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해야 하는 소설을 쓰기에는 재능이 모자라는 필자의 안이한 저작물이라는 느낌을 받기 십상이다. 취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을 넘어선 새로운 사실을 더 발견하기는커녕 기존에 알려진 사실조차 제대로 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새롭게 해석되고





창조된 인물을 만날 수도 없는 맥빠진 기록일 뿐이다. 혹은 사석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 주고받는 험담 수준의 이야기를 전기이거나 소설이라고 내어 놓기도 한다. 김동인의 <김연실전>이 바로 그런 것이다. 신여성 김명순이 이미 사회적 생명을 잃어버린 1930년대 말에 나온 이 소설은 실존인물 김명순에 대한 악의에 찬 기록이다. 그런데도 작가인 김동인이 김명순과 동시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김연실전>이 실존인물 김명순에 대한 거의 일차 자료로 취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극복한다고 나온 최근의 어떤 소설도 그 해석의 출발이 되는 기초적 사실이 김동인의 작품에서 출발하였기에 새로운 해석조차 불구일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연보조차 없다. 그런 김명순 자신의 일차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그가 살아있던 시대 속에 배치한다면 훌륭한 평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1920년대 초반의 신여성들 말고도 흥미로운 삶의 궤적을 그린 여성들은 많다.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은 그 이전의 신여성과는 다른 사상적 지향을 가지고 연애와 결혼에 임했으며, 이들의 앞선 생각과 남달랐던 삶은 오히려 현대에 와서 더 많은 논의거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동안의 냉전 체제나 여성에 대한 편견 등으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허정숙을 들 수 있다. 허정숙은 일제시대 유명한 변호사였던 허헌의 딸로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한 여성이다. 그는 1920년대에는 기존 사회의 남녀관계에 대한 생각 및 정조 관념에서 벗어나 사상과 연애의 일치를 주장했고, 실제로 운동노선이 달라진 남편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는 등의 실천으로 1920년대 '조선의 콜론타이'로 불렸고, 1930년대 중반에는 세 번째 애인과 연안으로 망명한 뒤, 해방 후에는 북

그런 점에서 김명순에 대한 평전이 필요하다. 근대 초기 평양 갑부의 첩이 된 기생의 딸로 태어나 교육받은 근대의식과 타고난 신분에 대한 열등감이 복합적으로 얽힌 여성, 자신은 온몸을 던진 연애라고 생각하나 상대방 남성에게는 기생의 딸로 취급당했던 근대판 춘향이, 그러나 이몽룡 같은 낭만적 결구는 있을 수 없는 근대에 던져진 인간, 그래서 결국은 가난과 멸시 속에 동경을 걸인처럼 떠돌다가 그 죽음조차도 알 수 없는 비극적 여성 김명순의 삶은 충분히 흥미롭고 시사적이다. 그런데 김명순은 김동인에 의해 너무 폄하되어 다른 연구자나 평전작가의 관심을 못 받은 탓인지 동시대의 나혜석이나 김일엽의 전집과 평전이 출간된 것과 비교해서 보면

이 글을 쓴 이상경은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로 있다. 저서로 《한국근대민족문학사》, 《인간으로 살고 싶다-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등이 있고 '강경애 전집', '나혜석 전집' 등을 펴냈다.

에서 최고위직에 오른 여성이었다. 그러나 이런 허정숙에 대해서도 연애와 결혼에 관한 삽화만 알려져 있을 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허정숙의 내적 논리와 당시의 환경 같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한 허정숙의 삶을 재구성한 평전이 나온다면 그것을 통해 독자들은 시대를 앞서 살았던 또 한 명의 여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허정숙의 다음 세대로서 박진홍 같은 여성은 1930년대 초반 서울의 여학생 운동이 낳은 활동가로서 1930년대 내내 반제노동운동을 펼쳤던 이재유 그룹의 핵심 성원이었다. 옥중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던 그는 해방 직전 국문학자였던 김태준과 함께 연안으로 탈출했고 해방 후에는 조선부녀동맹을 주도하였다. 허정숙에 비하면 박진홍은 활동가였기에 자기기록을 거의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일제 경찰의 심문조서나 재판기록, 당시의 신문잡지의 기사들을 모으고 그것을 여러 사회적 관계 망 속에서 재구성하는 평전이 씌어 진다면 독자는 새로운 종류의 여성상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